

기후변화에 사과·배 서리 피해 늘었다

6년간 보험금 8천633억...총 보험금 63% 차지 과일 생산량 감소·가격 상승 초래 등 부작용 속출

2010년대 후반부터 기상이변으로 봄철(3월 하순~4월 말) 서리 발생이 늘고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과수 농가 서리 피해(동상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와 배 봄철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8천633억원에 이른다.

이는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총보험금(1조3천897억원)의 63%를 차지한다. 농작물에 서리가 내리면 조식이 얼어붙어 파괴된다. 서리 피해는 과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와 배 작과(열매가 달리는 것) 수량은 전년보다 각각 16.5%와 31.8% 감소했다.

지난해 사과·배 관련 총보험금(2천658억원) 중 작과 감소로 인한 보험금은 1천841억원(69.4%)에 이른다.

'냉해'로 불리기도 하는 서리 피해에 탄저병까지 겹쳐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천t으로 전년보다 30.3% 감소했다. 배 생산은 18만4천t으로 26.8% 줄었다.

봄철 서리 피해로 인한 과수 생산량 감소가 수급 불안을 초래하면서 올해 1분기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109% 상승했다. 배 가격도 같은 기간 148% 올랐다.

국립기상과학원과 한국외국어대 대

기환경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로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이에 더해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 기온이 상승 추세인데도 이상기후로 끝서는 점차 늦어지고 있어 서리 발생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과·배·복숭아를 주로 재배하는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서리 발생 빈도가 높아져

겨울 내년 수량과 품질 동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개화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과수는 꽃이 피면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한다. 개화기에 서리가 발생하면 꽃눈이 고사해 착과 수가 감소하고 착과가 되더라도 기형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봄철 서리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년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사전예방, 사후보상, 사후관리로 3단계 체계를 구축해 봄철 서리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

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온풍기, 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봄철 서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하고 봄철 저온피해를 비롯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준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전국 사과·배 과수원 가운데 봄철 서리를 막을 수 있는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이 설치된 면적은 지난해 1.1%에 불과했으며 올해 추가 설치분까지 더해도 2.2%에 그친다.

/연합뉴스



국내차 판매량 1-4위 RV '쏘울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레저용 차량(RV)이 상위권 판매 순위를 싹쓸이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베스트셀링카' 1-4위는 기아 쏘렌토, 현대차 쏘타페, 기아 카니발, 기아 스포티지 순이다. 사진은 10일 경기도 기아 오토랜드 광명 앞 출고 대기 중인 차량들.

/연합뉴스

한은 "총선 직전 경제심리 32개월만에 최고"

뉴스심리지수 상승세...반도체 활황 따른 '착시' 지적도

총선 직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한국은행 통계 자료가 나왔다.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물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한 점이 경제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8월 기준 115.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115.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96.2에 그치며 100선을 밑돌았던 이 지수는 올해 들어 추세적으로 상승해 이달 3일 117.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업률 통계로 공표해온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수 상승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경성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에"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성수지는 68억6천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스심리지수가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진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질적인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활황에 따른 일종의 착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중 쇼핑몰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화들짝'

한국 소비자 안전 우려 확산 속 알리·테무 '긴장'

중국 쇼핑몰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최저가·공짜 쇼핑을 게임처럼 즐기던 한국 고객들이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이들 플랫폼 쇼핑을 즐기던 한국인 고객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 분석 결과 40개 제품 중 9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현금 살포성 마케팅을 게임처럼 즐기던 마니아 고객층의 우려가 더 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8일부터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에서 '천역 페스타'를 진행하면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두 차례 행사를 선보였다.

선착순으로 오렌지(1.5kg), 마나나 3송이(4kg), 망고(4kg), 파인애플 2개(2.5kg), 유정란 2판 등을 각각 1천원에 구매하면 무료 배송해주는 '천원딜', '천원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한국 고객이 워낙 빠르게 증가한 만큼 발암물질이 사용된 제품 구매 등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당국의 전방위 감시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보도된 상품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며 "안전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국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1분기 국적 항공사 이용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지난 1-3월 여객수 2천254만명...2019년 1분기 96% 해당

올해 1분기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여객 수가 2천254만명을 넘어섰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적 항공사 여객 수는 2천253만8천7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것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2천339만여명)의 96.3% 수준이다.

국내선 여객 수는 약 746만명으로 2019년 1분기의 98.7%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3.6%가량 감소했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국내선 항공 수요가 국제선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천508만명으로 1천533만명이었던 2019년 1분기의 95.2

%를 기록했다. 984만명이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3.3% 급증했다. 엔데믹에 따른 팬데믹(역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 효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대형 항공사(FSC)의 국제선 여객 수는 대한항공 438만명, 아시아항공 285만명 등 723만명이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여객 수 842만명의 8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여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0-40% 늘었고, 주요 LCC는 2019년 1분기 수준을 뛰어넘었다.

제주항공 여객 수가 222만명으로 LCC 가운데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 166만명, 진에어 16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티웨이항공이 125.6%의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덤편)</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